

SL4 기원호!

절찬리 판매 중

HoT Issue!!

이르니가 제안하는 모라투와 하루 여행!
르와니가 만난 스리랑카 '암마(Amma)들'
수필이 소개하는 다른 모습의 스리랑카 역사!
다맛이 말하는 'SL4는 이렇게 먹고 살아요!'
사그리의 '스리랑카에서 잘 살기 비법'
etc...

- 후원 -

KB *b 국민은행



한국 YMCA 연맹

SL4 11월의 기록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나무 울타리 만들기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2 -나무 울타리 만들기 -장보기	3 -Herbal Drink 나누기 -나무 울타리 만들기 -'Angulana' 태권도 class 진행	4 -나무 울타리 만들기	5 -나무 울타리 만들기 -Children Club -한국어 class 진행	6 -댄싱 class 참가 -태권도 class 진행	7 -대청소
8 -'Smile Moratuwa' 방문조사 준비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9 -'Smile Moratuwa' 방문조사 준비 -장보기 -'RaonAtti Garden' 만들기	10 -Herbal Drink 나누기 -'Smile Moratuwa' 방문조사 -'Angulana' 태권도 class 진행	11 -'RaonAtti Garden' 만들기 (복우로 인해 YMCA 자제 휴일)	12 -'Smile Moratuwa' 방문조사 -Children Club -한국어 class 진행 -YWCA pray meeting 참석	13 -댄싱 class 참가 -태권도 class 진행	14 -대청소
15 -'RaonAtti Garden' 만들기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16 -'Smile Moratuwa' 방문조사 -장보기 -'RaonAtti Garden' 만들기	17 -Herbal Drink 나누기 -'RaonAtti Garden' 만들기 -YMCA pray meeting 참석	18 -'RaonAtti Garden' 만들기	19 -나무 울타리 라벨 만들기 -Children Club -한국어 class 진행	20 -태권도 class 진행	21 -대청소
22 -나무 울타리 라벨 달기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23 -Sinhala class -장보기 -'Kalutana' Children home 방문	24 -Herbal Drink 나누기 -'RaonAtti Garden' 만들기 -'Angulana' 태권도 class 진행 -Youth Club	25 -비자 갱신 @콜롬보	26 -'Smile Moratuwa' 보고서 작성 -캐롤 연습 -Children Club -한국어 class 진행	27 -태권도 class 진행 -모라투와Y 미술&글쓰기 대회 시상식 일일 스태프	28 -대청소
29 -'Smile Moratuwa' 보고서 작성 -캐롤 연습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30 -캐롤 연습 -장보기 -'RaonAtti Garden' 만들기					

강가의 아이들..

매주 월요일오후.

우리의 주무대인 모라투와 YMCA랑은 걸어서 5분 거리.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모라투와 시장 사람들과 눈 인사를 하면서 평소 걸음걸이의 두 배로 걷는다. 내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맑고 순수한, 장난기 가득한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 인입에서 본 강가 〉



〈 SL4를 마중나온 친구들 〉

강가에는 여느 다른 마을처럼 여러 가정이 모여 산다.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는 하지만 가정에 일이 생기거나 아파서 학교를 잘 못가는 경우가 많다. 강가 바로 옆이라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집에 물이 차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나 비 온 다음 날에 학교엘 가질 못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강가의 아이들이다. 밤에 잠은 제대로 잤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걱정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는 매주 월요일 오후 강가로 향한다.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고 싶었는지 우리가 강가로 향하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강가와 멀리 떨어진 곳 차 도로변까지 뛰어 나온다. 우리는 아이들이 위험해서 다칠까봐 걱정이 되지만, 아이들은 괜찮다고 '씨~익' 하고 웃어준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금세 걱정했던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든다.

아이들과 함께 강가로 노래를 부르면서 강가로 향한다. 동네 입구에는 어른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 SL4가 등장하면 어른신들의 시선은 우리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우리는 큰 소리로 인사한다. "아유보완(안녕하세요)" 하고 말이다. 어른신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우리는 각자의 반으로 흩어진다.

애들아!!! 빠당하자~

애들아~ 선생님왔다~

아이들의 연령대 별로 반을 나누어, 우리는 그 반의 보조 선생님이 되어간다. 주 선생님은 따로 계신다. 각 반별로 주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학습을 하거나, 우리가 준비해 간 종이접기, 색칠공부를 한다. 마지막 주 월요일은 강가 제일 근처에서 수업하는 우리 반에 강가에 사는 아이들 모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함께 어울린다.



< 씬빳과 수학 수업 >



< 독수리 5자매 >

내가 투입되는 반은 독수리 5자매 반이다.

처음에는 5명이 꾸준히 나오다가, 지금은 여차여차 두 명으로 고정되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신할리어를 배우고 아이들은 나에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학이나 영어를 배운다. 보통은 신할리어 책으로 수업을 하거나, 영어 수업을 하지만 아이들이 과제를 받았을 때에는 수학 수업을 한다. 수학 시간에는 우리 반의 주 선생님이신 우리의 코디네이터 Sampath은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준다.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싫은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장난치는 것이 좋은지 내 옆으로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퐁퐁퐁퐁한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손바닥에 문제를 풀어가며, 아이들과 장난도 쳐 가면서 수업을 한다.

수업이라고 해서 학교처럼 딱딱하고 권위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며 함께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 남을 돕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들과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밝게 웃는 아이들. 순수한 눈망울을 소유하고 있는 아이들 때문..'

우리는 아이들로 부터
소소한 것에서 부터 오는 '감사함'
모든 것을 아낄 줄 아는 '사랑' 을 배웁니다.





Hiruni의 허벌 이야기..

허벌 드링크 활동은 매주 수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라온아띠팀이 LGH(Lunawa Government Hospital)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시는 환자분들에게 콜라켄더(건강음료)를 나눠드리는 활동이다. 2010년 9월 29일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을 콜라켄더와 함께 하고 있다. 아무리 피곤해도, 전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이날 만큼은 별떡별떡 잘 일어난다. 허벌 드링크 프로젝트는 전 기수에게서 이어 받은 활동 중에서 가장 먼저 '제대로' 시작한 활동이다. 즉, 스리랑카에 온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해온 활동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전 기수에서 우리 기수로, 우리에서 또 다음 기수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활동.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애착이 간다.

지금부터 우리의 허벌 이야기, 시작!



오늘은 수요일. 지금은 새벽 다섯 시 반. 힘겹게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많지도 않고 잘 잡히지도 않는 새벽 버스를 타고 부랴부랴 자야 가쁘너 씨택으로 간다. 여기서 의문!! 자야 가쁘너 씨가 누구?? *자야 가쁘너 씨는 Y의 일을 돌봐주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으로, 우리는 따따(아빠)라고 부르며 모라투와 YMCA 내에 따따택이 있다. 우리의 집이 YMCA에서 조금 먼 관계로 따따택을 빌려서 허벌 드링크를 만든다. 다밋의 회사놀이에 의하면, 루와니와 수푼은 분쇄팀, 히루니와 다밋은 압축팀, 사그리는 마늘팀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깎고**, **짜고**, **끓인다**.

“HOW TO MAKE Herbal?”

Step1



< 분쇄팀 >

Step2



< 압축팀 >

Step3



< 마늘팀 >

Step4



< 찌기팀 >

1. 전날 손질해 놓은 캔더를 믹서기에 넣고 간다.
2. 갈아 놓은 캔더에 물을 섞어 채에 거른다.(가끔은 난닝구에 거른다.)
3. 코코넛, 밥 간 것, 마늘 혹은 생강을 넣는다.
4. 큰 솥에서 밥이 눌려 붙지 않도록 열심히 저어 주면서 끓인다.

'아침의 캔더'로 상쾌한 아침을...



Tip!



- Curry leaf : 피를 맑게 해주고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다.
- Gotukola : 피부를 좋게 해주고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
- Wall penara : 정력에 좋음.
- Hathawariya :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들에게 좋다.
- Mukunuanna : 시력을 좋게함.
- Coconut : 약초의 쓴 맛을 없애 주고 콜라캔더의 맛을 더 좋게 함.

이렇게 만들어진 콜라캔더를 가지고, 바자지(스리랑카 택시) 두 대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출발!
 '아유보완, 아삐 라온아띠팀. 아삐 코리아 씨타 아와'
 루와니의 우렁차고 애교 섞인 "콜라캔더 본느, 꼬뿌 기니안느 에빠(콜라캔더 드세요, 킴은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허벌 드링크를 나눠 드리기 시작한다.
 진료를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가 정성껏 만든 콜라캔더를 마시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절로 힘이 나고 흥이 난다.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 콜라캔더를 나누면서 우리 마음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장 솔직한 웃음을 전달하는 시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같은 시간을 보낸 후 다음 주 수요일을 기약하면서...

“아유보완, 수보 우데사나 웨와”



< 허벌 나눠주는 SL4 >



< 설거지 다했어요^^ >



< 다음 주 수요일에 뵙고.>

한국어 교실

사랑하는 라온아띠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리랑카’에 관심있으신 분. 안녕하세요. 수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프로젝트 중 하나죠, ‘한국어 교실’ 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기때부터 이어져 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1,2기가 일 년을 주기로 왔기 때문에, 다음 기수로 이어지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길어 많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잊어버리거나 오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들어 지속적인 자원활동을 위해 일 년에 두 기수씩 파견되면서 한국어 교실 또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자리잡기를 MORATUWA Y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어깨가 무겁다는 걸 알기에 한국어 교실 전 날에는 회의시간이 많이 길어지곤 해요.^^ 언제나 “꼬레아 혼다이!” 라고 외쳐주시는 그들.. 이제 함께 만나볼까요.

아! 그전에 저희 ‘한국어 교실’ 선생님들 소개드릴게요.

한국어 교무실

한국 음악 선생님



이름 : 히루니 (김 보람)
나이 : 스물 셋
좌우명 :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살자!
특이사항 : 음치! 박치! 몸치!

상황극 선생님



이름 : 다 밋 (정 동민)
나이 : 스물 넷
좌우명 : 순간을 살자!
특이사항 : 함께할 친구가 없음!

한국어 시험 선생님



이름 : 루와니 (강 민지)
나이 : 스물 넷
좌우명 : 강민지가 최고다!
특이사항 : 실물과 사진은 동일인물!

한국어 단어 선생님



이름 : 수 훈 (한 상진)
나이 : 스물 다섯
좌우명 : 될 사람은 된다!
특이사항 : 26년만에 못하는 것 하나 찾음

모/자음 선생님



이름 : 사그리 (허 소현)
나이 : 스물 둘
좌우명 : 겸손과 긍정!
특이사항 : 모/자음 구별 못함!

학 구 학문을 연구함.



우리의 한국어 수업 시간은 '매주 금요일 18:30 ~ 19:30분' 까지 예요. 처음 우리가 한국어 클래스를 맡았을 때에는 '한국어 능력평가' 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준별 학습으로 각자 반을 하나씩 맡았어요. 루와니(강민지)는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준비반, 수훈&히루니(한상진, 김보람)은 중급반, 다밋&사그리(정동민, 허소현)은 초급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였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자신감이 충만하였지만, 하지만 웬걸.. 첫 수업을 마치고 우리들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어! 렵! 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 맡은 반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밤낮 가리지 않으며 생각을 거듭했어요. 모음 자음 카드도 손수 만들어 써 보기도 하고, 한국 노래도 들려주며 한국어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 하였죠.



특히, 루와니가 맡고 있는 '한국어 시험 준비반' 은 한 달 뒤 바로 한국어 시험이 있다는 소식에 루와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분들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들은 그분들이 꼭 시험에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물론 잘 하시는 분과 잘 못하시는 분이 확실히 구별되었지만, 우리는 확실히 통과할 수 있을거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요..^^ 그러던 지난 10월 31일이었죠. 드디어 스리랑카에서 한국어 시험이 열렸어요~ 아직 결과는 알수 없지만, 우리 팀원들은 간절히 그분들이 한국어 시험을 패스해서 한국에서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기를 간절히 바랄 뿐...

우린 한국어 시험이 끝나면서 한반으로 합쳤어요. 반을 나누면 좀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면서 한국어가 쉽게 지루해져 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합반 첫 날! '우리도 만족! 학생들도 만족!' 역시 다같이 노래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상황극도 하니 분위기 상승! 학습력도 상승! 일석 이조였어요. 지금 우리도 스리랑카에 온 지 삼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잘 적응하며 지내듯이, '한국어 교실' 또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앞 기수들이 잘 다져놓은 길을 잘 이어 받아서 다음으로 이 땅을 밟을 라온아띠 5기 스리랑카팀에게 고대로 꼬오대로~~ 이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태권도

TaeKwonDo

'모라투와를 지키는 태권소년·소녀 10남매' 미래의 스리랑카 태권도 국가대표팀이 나가신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면 모라투와 YMCA가 들썩인다. 라온아띠 4기가 진행하는 태권도 교실에 모라투와를 지키는 태권소년과 태권소녀 10남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모라투와 YMCA의 칠드런 클럽(Children Club) 멤버들로 구성된 태권도 교실은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망으로 활화산만큼 뜨겁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운동하지만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7시 30분에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순수하게 배움을 갈망하는 아이들이 너무 기쁘고 예뻐서 조금씩 수업 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초기만 하더라도 오전 9시에 태권도 교실을 시작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10시부터 YMCA가 주관하는 다른 강좌가 열리면서 불가피하게 시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이른 시간으로 바뀐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출석해 나날이 일취월장하는 '모라투와를 지키는 태권소년과 태권소녀 10남매'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사범 약력



다밋(정동민)
공인 4단
98' 용인대 동문 품새대회 입상
09' 대사협 해외봉사단 '라오스'팀 태권도 시범단(팀장)
10' 스리랑카 파견 직전까지 동네 체육관 사범 활동



루와니(강민지)
공인 3단
99' 전국 소년체전 지역 예선 입상
99' 사이판 태권도 시범단
09' '미래숲' 방중단 태권도 시범단(팀장)
10' 라온아띠 4기 면접 시 태권도복 착용

태권도 교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아직도 생생하다. 스리랑카에 도착한 첫 주의 어느 날, YMCA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던 아이들을 만났었다. 인사만 나누고 돌아서려던 발걸음을 잡은 것은 아이들의 열정이었다. 결국 아이들과 처음으로 만난 날, 다밋과 루와니 사범은 어느새 아이들의 손동작과 발동작을 교정해 주고 있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더없이 훈훈했던 첫 만남을 뒤로 하고, 공식적인 첫 수업 시간을 기억했다.

드디어 도복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섰다. 아쉽게도 이전 기수와 인수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아이들의 태권도 수준과 진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런 과정에서 4기만의 태권도 교실 운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심신의 조화로운 단련과 예의를 중시하는 무도라는 점에 주목했다. 아이들이 단순히 태권도 발차기를 잘하는 것 보다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올바른 인격과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보람이 되고 싶었다.

	07:30~08:00	08:05~08:20	08:20~09:00	09:05~09:20	09:20~09:50	09:50~09:55
1주	준비 운동 및 체력 단련	주먹 지르기	품새 익히기	기본 발차기	연결 발차기	마무리 운동
2주	준비 운동 및 체력 단련	주먹 지르기	품새 익히기	기본 발차기	시범 발차기	마무리 운동
3주	준비 운동 및 체력 단련	주먹 지르기	품새 익히기	기본 발차기	스텝 발차기 (겨루기)	마무리 운동
4주	준비 운동 및 체력 단련	주먹 지르기	품새 익히기	심사 (~09:30)	게임	마무리 운동

평소에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이지만 운동 시간만큼은 엄하지만 인자한 스승이 되자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려는 마음에 태권도 수업을 혼신의 힘으로 준비하는 다밋 사범의 열정은 엄격함과 인자함을 동시에 가진 스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태권도를 알리는 그 시간 만큼은 태권도가 가진 정신까지도 온전히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매 시간 시작과 마침 때 "차렷, 인사~ 아유보완!" "차렷, 인사~ 이스트뚜 때!"의 기본적인지만 가장 중요한 인사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다. 두 사범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더레이(손 모 양은 머리 위로 큰 하트)!"로 응답한다. 끈끈한 사제지간의 정은 이렇게 나날이 깊어간다.

태권도 교실에서 태권도와 관련된 용어는 최대한 한국어 명칭 그대로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세계 대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가 한국어이다.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영어보다는 신할리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하겠지만 태권도를 배우려고 온 아이들이 아닌가. 실제로 아이들은 한국어 명칭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발음하고 온전히 알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한다.

두 시간의 운동 시간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아이들은 발차기 한 번 더 하는 것에 급급하고, 운동 시간에도 장난을 걸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태권도 정신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 정신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었다. 마냥 재미있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얻어가기를 원했다. 아이들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고, 그런 너희들을 믿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했다. 언어적으로 충분치 않은 의사소통은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의 진심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은 달라졌고, 긍정적으로 변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자 자랑이다.



아누쉬(15)



아신(12)



샤신(13)



사미프(13)



아이쉬(11)



두란젠느(15)



바룬(12)



디데쉬(12)



프레거티(11)

네마샤(11)



이제는 많이 자리가 잡힌 라온이며 4기의 태권도 교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길거리 시범'을 계획하고 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태권도에 대해 잘 모른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가라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배우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태권도는 이제 막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운동했던 스리랑카 소년과 소녀들의 태권도 공연!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태권도 교실에는 루와니 사범을 제외하고는 전부 남자들이었다. 태권도를 배우는 여자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문화에는 아직까지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태권도 교실이 열리는 매주 토요일 모라투와 YMCA 곳곳에는 스리랑카 전통춤을 배우는 수많은 여자 아이들을 볼 수 있다. 루와니 사범은 매주 칠드런 클럽에 나오는 여자 아이들을,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이 험한 세상에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태권도라는 것을 말이다. 그 결과, 11월부터 두 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태권도 교실에 나오고 있다. 루와니 사범은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다는 후문이다.

이 외에도 우리 태권도 교실만의 사제지간 단채리서츠 제작과 앙굴라나(Angulana) 태권도 교실과의 합동 교실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태권도 교실이다. 어찌 사랑하지 않으리오!

* 앙굴라나(Angulana) 태권도 교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다밋과 루와니 사범은 앙굴라나 지역의 빈민촌에 태권도를 가르치러 출동한다. 사실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목적보다는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웃고, 즐거움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그곳에 가는 더 큰 이유이다. SL4가 국내 훈련 때 아산 YMCA 박진용 사무총장으로부터 배웠던 YMCA의 가치 중 하나인 '사람을 키우는 일'을 현지 YMCA에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실천하게 된 것이다. 앙굴라나 태권도 교실은 우리 4기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자리를 잡아가는 프로젝트인 만큼 서로에게 더 알찬 시간이 되도록 고민한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SL4의 마음의 소리

Episode #1 - 오산드 편-



햇빛 쨍쨍한
어느 날..

여기는 모라후와
YMCA 뒷 마당..



라온아띠 SL4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의문의 발소리



MORATÜWA YMCA

KORÉA YMCA

RAONATTI 4th

STI L'ONGKONG TONG



은 달은 소리까지 들린다..



위지??

루와니는
불가능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장시후....



우리 앞에 나타난
'오산드'
여기 있었군!
이런 표정으로
우리 앞에서 웃고 있었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빵'
터져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오산드' 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도의 눈물, 스리랑카
다시 꾸는 꿈.



POWER OF SRI LANKA

안녕하세요. SUPUN입니다. 제가 이번 11월에 쓰게 된 TOPIC은 “스리랑카의 뿌리”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한 건 스리랑카에 오고 얼마 있지 않았을 때예요. 스리랑카에 오고 얼마되지 않아서 우리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는 기자분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을 설명하였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착한 일 했다면, ‘칭찬해 주세요.’라고 말하듯이요. 경청하시던 기자분 왈,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스리랑카 정부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리랑카 정부가 좋아할 만한 일이라.. 우리의 표정을 읽으셨는지 기자분이 마저 말을 이으셨어요. “혹시 스리랑카의 뿌리를 알고 있으세요?”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희는 기사나 뉴스에서 봤던 스리랑카를 말했었더랬죠.. 그리고 우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생각을 나누었어요. 그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아직 스리랑카를 모르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스리랑카 또한 한쪽 시선으로만 보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주제로 쓰면서 저의 의문이 조금은 풀릴 것 같네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할게요.

T “스리랑카의 뿌리를 알고 있으세요?” Trace the root of Sri Lanka

스리랑카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신할리족은 BC 6세기경에 인도 북부로부터 건너와 선주민을 정복하고 왕국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인도 남부 타밀족의 침략을 받아 차차 그 세력이 밀리게 되었고, 타밀족은 섬의 북부에서 따로 왕국을 수립하였다. 신할리족의 왕조는 BC 3세기에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를 수용, 보호하며 남방 상좌부 불교의 정통파로서 실론 불교의 전통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16세기부터는 유럽 열강의 침입이 시작되어 제일 먼저 우선 1505년 포르투갈인들이 해안 지역의 일부를 점령하고, 이어 1602년에는 네덜란드인이 침입하여 포르투갈인을 몰아냈고, 1795년에는 영국이 네덜란드를 굴복시켰고, 1815년에는 캔디에 근거를 둔 마지막 신할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영국은 자본을 이용해 인도로부터 타밀족 노동자를 이주시켜 “플랜테이션” 경영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신할리족과 타밀족의 대립이 심각해졌다. 이것이 훗날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아픈 내전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가진다.

Buddhism

스리랑카의 국교는 불교. 하지만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나라. 여기는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기원전 3세기경에 불교를 받아들인 이래 오늘날까지 가장 확실하게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오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은 생존했을 당시 스리랑카를 세 차례 방문했으며, 켈레니아에서 설법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사가들에 의해 기록된 스리랑카 불교사는 불멸 265년(기원전265년) 아쇼카 왕이 그의 아들 마힌다장로를 파견한 것으로 시작한다. 마힌다 스님은 4명의 비구와 사미인 수마나를 데리고 스리랑카로 건너와 수도인 아누라다푸라의 마시카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마침 사냥나온 국왕 데바냥 피야 티사를 만나 설법 교화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32세에 스리랑카로 건너와 불법을 전한 마힌다장로는 80세에 열반하였다. 그러나 많은 국왕과 귀족의 귀의를 받아 불교의 뿌리는 스리랑카에 튼튼하게 심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스리랑카 불교의 뿌리가 된 이야기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Moratuwa에는 50%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부처불상은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THE TAMIL RACE IN SRI LANKA



Domestic warfare

인도 남부의 작은 섬,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 바로 26년 간 계속되었던 내전이 작년 5월 18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인도양의 진주라 불릴만큼 아름다운 나라 스리랑카. 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내전으로 역사에 남은 비운의 섬이기도 한 이곳 내전의 역사를 SUPUN과 함께 살펴보자.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스리랑카에서 다수민족 신할리족과 소수민족 타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내전 본래 스리랑카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48년 2월 실론이라는 국호로 독립한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실론의 주요 권력들을 다수의 신할리족들이 독점하면서 소수 타밀족에 대한 차별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어 1972년에는 국명 또한 타밀어로 된 국호인 실론에서 신할리어인 스리랑카로 변경하였다. 그런 다수계의 신할리족들의 탄압을 이기다 못한 스리랑카의 타밀족들은 1960대 중반부터 정부의 타밀족 탄압에 맞서 자치권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이들 타밀족들의 자치권 요구를 철저히 탄압하였다. 타밀족들은 스리랑카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타밀족만의 민족 국가 건설을 외치기 시작했고, 1976년 급진적인 폭력 방식으로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가 결성되었다.



< 스리랑카 정부군과 교전 중인 LTTE >

벨루필라이 프라바카란

이후 1983년에 들어서면서 타밀족들의 독립운동이 절정에 다다랐고, 북부 자프나시에서 과격한 타밀인들이 주둔 정부군 13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급기야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할리인들의 타밀인 학살이 전국적으로 자행되었으며 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후 폭력적인 테러 방식으로 타밀인들의 독립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LTTE의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스리랑카는 LTTE 반군과 정부군 간의 내전으로 이어졌다. 그

러던 중 스리랑카와 인접 국가인 '인도' 역시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았다. 1983년 타밀족 학살 이후 인도는 스리랑카 내전을 인도의 종족 내분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중, 후반에 스리랑카 내 타밀족들이 내전을 피해 남인도 타밀 나두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 내전 무력 개입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인도-스리랑카 협정에 의해 7만 병력의 인도군이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스리랑카에 파병! LTTE반군의 무장 해제와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군 병력을 스리랑카에 파견했던 인도는 LTTE반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고 1,200명의 사상자를 낸 채 1990년 인도는 '스리랑카 문제는 스리랑카인들 그들의 문제이므로 인도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천명한 채 주둔군을 철수시킨다. 그틈을 타 LTTE는 동북부 전역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LTTE는 1991년에는 스리랑카 내전 개입을 결정한 라지브 간디 전 인도 수상을 폭탄 테러로 암살하였고, 이후 스리랑카 내전은 LTTE 반군과 스리랑카 정부군 간의 치열한 교전과 휴전 협정의 체결과 파기를 반복하는 등 26년간이나 장기화되었다. 그러던 중 2005년 강경 노선의 마힌다 라자팍세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내전은 정부군쪽으로 우세해지기 시작, 2009년 1월 2일 스리랑카 정부군은 LTTE 반군의 최대 거점지인 킬리노치치를 공격함으로써 스리랑카 내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점차 LTTE는 패색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킬리노치치와 몰라이티부등 중요 거점지를 모두 정부군에게 빼앗겨 위기에 몰리게 된 LTTE는 라자팍세 대통령에게 평화 협정 체결을 제의하지만 이 모두를 거절당한다. 그리고 작년 5월 LTTE 최고 사령관이었던 벨루필라이 프라바칸이 정부군에 사살당하고 남아있던 LTTE 반군 대원들마저 정부군에게 항복함으로써 스리랑카 내전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THE SINHALI RACE IN SRI LANKA

SL4

생활 백서

-랑카에서 자~알 살고 싶은 그대,
읽어라, 그리고 살아라!!



SAGARI HEO 지음

SL4 출판사

스리랑카에서 산지도 벌써 3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지내며 스스로 터득한 'SL4 생활 백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Chapter 1. 일상생활편

첫째, 잇몸 닦기

-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현지인처럼 웃어라. 그리고 치아 16개를 보여라. 그럼 상대방은 친구처럼 웃어주고 대화도 건네줄 것이다. 치아 16개를 보일 때 중요한 잇몸. 이 닦을 때 이보다 중요한 잇몸, 칫솔로 조심히 닦아라. 웃을 때 잇몸까지 보여주는 당신, 진짜 멋쟁이다.

둘째, 모자가 햇빛만 가려주진 않는다.

- 우리 SL4 중 벌써 두 명이 당한 것, 이곳 스리랑카는 까까(까마귀)가 정말 많다. 그래서 그런지 전선 밑을 다닐 때 하늘을 보면서 다니기 마련임. 하늘을 보지 않고 다니다간 까마귀 No.2(대변)를 맞는 일이 종종 있음. 뭘 모자가 더러워지는 것은 괜찮지만, 머리에 맞는다면 큰일. 모자를 쓰고 다니는 당신, 까마귀 No.2 테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2. 음식편

첫째, 음식점에서 공짜로 곱빼기 시키기.

- 처음 가는 음식점에서 고다이고다이(밥이 많아요)를 외치면 종업원의 눈초리가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쳐라. 그럼 1인분의 양을 더 얻을 수 있다. 4인분의 밥을 5인분처럼 받기. 배고픈 그대. 음식점에서 외쳐라. 그럼 원하는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알고 있는 음식 종류를 신할리어로 몇 개만 외쳐주면 더욱 좋다. '으이구, 요놈들~' 하는 표정으로 더 얻어 주신다.

중국의 특정한 한 분야는 정말로 점진적으로 개혁되었다. 국영기업 부문이 바로 그러했다. 중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국영기업을 부분적

둘째, 바늘 가는 곳에 실 가듯 밥과 '빠빠당'은 떼어낼 수 없는 사이

- 이곳 음식은 한국인 입맛에 잘 수도 있다. 대부분의 식당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조금은 짠 음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찾는다. 빠빠당을, 한국으로 치면 밀가루 과자 정도. 한국에서는 과자와 밥을 함께 비벼먹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밥과 빠빠당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한국인 입맛을 바로 잡아 주는 빠빠당. 밥을 먹을 땐 빠빠당과 먹어라. 그럼 그대의 입맛을 한층 더 돈구워 줄 것이다.

Chapter 3. 교통편

첫째, 달리는 버스도 멈추게 하고, 없던 정류장도 생기게 하는 아름다운 몸짓

- 이곳은 자동차가 정말 많다. 신호등도 드물게 있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가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 우리 SL4는 출근할 땐, 큰 대로에 서서 손 흔들기. 퇴근할 땐 우리의 주 무대인 YMCA 앞에서 손 흔들기가 취미가 되었다. 그냥 지나치는 기사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우리를 보고 세워 주신다. 처음에는 정류장. 지금은 길 한복판에서 버스를 세운다. 버스를 타고 싶은 그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손을 흔들어라. 그럼 버스가 멈출 것이다.

둘째, 스리랑카 기차의 VIP석

- 콜롬보에 갈 때나 다른 먼 곳을 갈 때 주로 이용하는 기차. 하지만 두 번만 앉으면 지루하다. 조금은 위험하지만, 게이트 앞쪽에 서 있어야. 손잡이를 잡고 자연을 느껴라. 그리고 바다와 기차 밖의 풍경을 보아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눈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 여성들의 삶

- '암마(Amma)'라서 행복한 그들

1960년 7월 1일 스리랑카(당시 국명 실론 Ceylon) 국민들은 자신들의 제7대 총리를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Sirimavo Ratwatte Dias Bandaranaike)로 선출했다. 세계 최초의 여성 총리였다. 그녀는 1992년 실론이 스리랑카 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꾸고 영국 연방 자치령에서 완전히 독립하던 당시에도 제9대 총리였다. 1994년과 1999년 연임에 성공한 찬드리카 쿠라마통가(Chandrika Kumaratunga) 전 대통령이 그녀의 딸이다.

이렇듯 스리랑카는 여성 대통령과 총리를 배출하면서 세계에 여권(女權) 강국의 인상을 심는 듯 했지만 '리더'를 제외하면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스리랑카 여성들에게는 가정 내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모라투와 YMCA에서 만나 수많은 '암마(Amma)'들은 그래서 더 각별하게 다가온다. 자신의 삶을 가족과 자녀를 중심으로 사는 스리랑카의 어머니들을 '강민지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스리랑카에는 한국의 '엄마'들 만큼이나 강한 '암마'들이 있다!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스리랑카의 여성, 특히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가 주는 울림을 쫓아가 본다.

한국에서도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의 등·하교는 물론이고 학원 시간에 맞춰 데려다 주고 데려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된 것은 근래 자주 발생한 사회 범죄들, 특히 악의적인 아동성범죄의 영향이 크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정도가 온전히 세상을, 낯선 타인을 믿기에는 힘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전과 달리 어느 누구도 믿기 힘들어진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이어진 것이다.

스리랑카에서 살면서 접하는 현지 부모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리랑카는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원칙인데 중학교(16세)까지의 의무 교육 이후 70% 정도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이후 20% 정도가 대학교에 진학한다. 학생들은 모두 하얀색 교복(교포와 넥타이로 학교 구분)을 입는데 길에서 학생들의 손을 잡은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다. 등·하교 시간의 도로 위에는 자녀들을 태운 오토바이나 자동차, 바자지(Bajaj, 한국의 택시) 역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SL4가 뿌리를 내린 모라투와 YMCA에는 칠드런 클럽(Children Club)을 비롯해 배드민턴·탁구 등 체육 프로그램과 컴퓨터·영어·수학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매 수업마다 많은 학생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돋보이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대부분이 암마) 아니면 조부모와 함께 온다. 때문에 수업 시작 전·후 모라투와 YMCA에는 부모들의 차나 그들이 타고 온 바자지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많은 암마들은 자녀들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라투와 YMCA 건물 곳곳에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쌍둥이 자매 프래거티(Pragathi sadamali Peiris, 11)와 네마샤(Nemasha Hemamali Peiris, 11)를 모라투와 YMCA의 칠드런 클럽, 컴퓨터 교실, 탁구 교실 그리고 라온아띠가 진행하는 태권도 교실에 보내는 자야라니(P. Jayarani Perea, 40) '암마'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그녀는 결혼 전에 일하는 여성이었으나 결혼 후 아이를 가지면서 전업 주부의 삶을 살고 있다.

Q. 자녀들의 등·하교 길과 과외 수업에 매번 동행하는가? 매번 동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그렇다. 아이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중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나의 동행은 계속될 것이다.



Q. 한국에는 아동성범죄를 비롯한 사회 범죄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들의 과잉보호가 있다. 혹시 스리랑카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가?

A. 그렇다. 아동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내가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Q. 엄마의 생활이 쌍둥이 자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힘들지는 않은가?

A. 전혀 힘들지 않다. 이것이 내 행복이기 때문이다.

Q. 쌍둥이 자매가 어떤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A. 직업적으로는 의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Q. 엄마의 어릴 적 꿈과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

A. 내 꿈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아 잘 기르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이뤄졌다.

Q. 지금 엄마는 행복한가?

A. 고다 사투두이(Godak Sathutui, 매우 행복하다)!



3년 1남 중 둘째 니뿐이(Nipuni Hasanthi Fernando, 12)를 모라투와 YMCA의 칠드런 클럽, 컴퓨터 교실, 탁구 교실에 보내는 한사니(Hansani Ranasinghe, 31) '엄마'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그녀는 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해 전업 주부의 삶을 살고 있다.

Q. 자녀들의 등·하교 길과 과외 수업에 매번 동행하는가? 매번 동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물론이다. 다른 학부모들처럼 나 역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을 함께한다.

Q. 자녀가 네 명인데 자녀들이 가는 곳에 모두 함께한다는 것인가?

A. 네 자녀가 가는 곳에 모두 함께한다. 자녀들 간에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요즘은 어느 정도 성장한 첫째가 막내 돌보기를 도와주면서 이전보다 모든 것이 훨씬 수월해 졌다.

Q. 엄마의 생활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힘들지는 않은가?

A. 그렇지 않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

Q.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A.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Q. 지금 엄마는 행복한가?

A. 당연하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스리랑카에 온 직후에는 매 순간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남성과 거의 동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여성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이리라. '엄마'들에게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이고, 꿈꾸던 미래가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마주한 자신의 인생이 모두 가족과 자녀로 점철된다면 그 느낌은 어떨까? 그 순간 깨달은 그들이 사는 현실이 그네들을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사실 이런 생각에는 개인적 경험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결혼 전부터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신 필자의 어머니는 아직도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늘 '직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로 필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진 일하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셨다. '일하는 엄마'를 됐던 덕분에 유치원도 중일반을 다녔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방과 후 여러 활동들을 스스로 해내야 했지만 동시에 '일하는 엄마'를 됐던 어린 시절 덕분에 또래의 다른 친구들보다 더 당당하고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다수의 스리랑카 '엄마'처럼 자녀를 키우는 방법과 개인적인 사례지만 필자의 '엄마'처럼 자녀를 키우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이분법적인 판단은 유보한다. 각 상황이 가진 여건의 차이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구심에서 시작했던 스리랑카 엄마들의 삶을 직접 들으면서 필자가 처음에 했던 걱정이 어리석은 기우였음을 알았다. 엄마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엄마들의 삶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것인데 어느 누가 그 삶을 어떤 식으로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제야 비로소 모라투와 YMCA에서 만나는 엄마들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이유를 알았다. 엄마들의 환한 웃음이 내 얼굴에 미소를 번지게 만드는 순간이다.



모라투와=강민지 기자
/smpkmj69@gmail.com

한솔 밥 먹는 식구

SL는 한 식구

2010년 7월 13일. SL4 다섯 명이 처음 만나 한솔 밥을 먹는 한 식구가 되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국내 훈련 때에는 한솔 밥을 먹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왜냐하면..평소에는 빵으로 매우거나 요리 비용보다 더 싸게 사먹거나, 다이어트를 핑계로 굶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국내 훈련 2주를 버텼기(?) 때문이다.

그런 SL4가 지금은 스리랑카에 있다. 먼저 현지에서 우리의 식사 방법을 알려 드리자면, 점심은 현지 Y에서 사주는 스리랑카 커리 or 중국식 볶음밥 or 퓨전 스타일의 볶음밥을(9월호 '수폰의 맛집을 찾아서' 참고) 번갈아 가면서 먹는다. 그리고 저녁은 1주일치 장을 본 음식 재료들로 집에서 직접 해 먹는다. SL4에게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닳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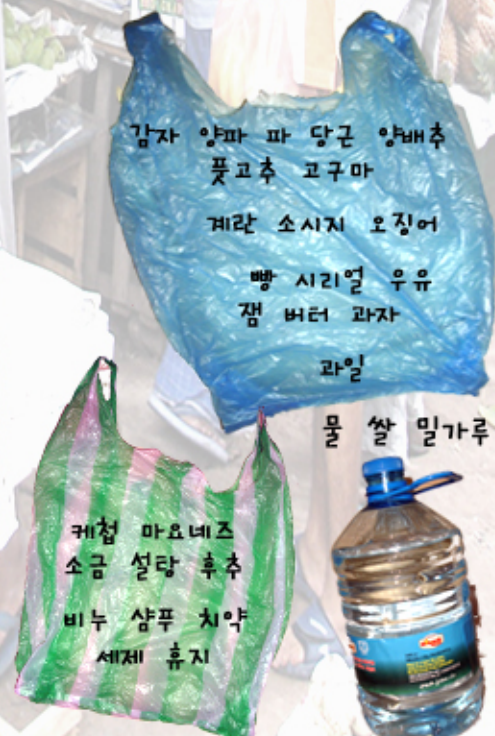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SL4답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라면, 김, 햄, 참치 등으로 저녁을 쉽게 해결하며 2주를 버텼다. 점점 한국에서 공수해 온 음식들이 바닥을 보이자 불안했지만, 그 사이 점심으로 먹던 현지 음식에 서서히 적응하였다. 한국 음식들에 박탈감(우리가 먹어 놓고도 박탈감을 느꼈다.;;)을 느끼면서 SL4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다. 그렇다, 돈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지금 생각해 보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후회한다...ㅠ). 한국에 비해 한끼 식사 기준으로 1인당 거의 1/5정도 저렴한 가격과, 현지어 조금과 현란한 손짓, 발짓을 보태면 충분히 가능한 의사소통으로 약 1주일 정도 현지 음식을 사서 먹었다(약간의 과장 보태서...).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설령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사람이 매일 저녁을 사 먹을 수 있겠는가... 또한 한국 사람으로서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팍팍 들어간 음식 안 먹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을 걷고 주방으로 들어선 SL4!!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 먹고 사는지 파헤쳐 보자.

우선 장보기!!



SL4 푸드 매니저 루와니 님의 장보기 전 의식 행사 중 하나인 셀카.



감자 양파 파 당근 양배추
 풋고추 고구마
 계란 소시지 오징어
 빵 시리얼 우유
 잼 버러 과자
 과일

물 쌀 밀가루

케첩 마요네즈
 소금 설탕 후추
 비누 샴푸 치약
 세제 휴지

9월 한 달 동안은 마치 스리랑카에 서서히 적응해 가듯, 주방에도 서서히 적응을 하는 시기였다. 애초부터 요리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푸드 매니저가 되어 only 재료 준비에만 온 힘을 다하는 루와니(강민지), 무엇이든 많이 넣기만 하면 요리가 된다는 사그리(허소현), 음식 만들어 놓고 먹으면서 항상 후회하는 히루니(김보람), 요리할 때 간 보면서 음식을 거의 다 먹어버리는 다밋(정동민), 싱겨우면 소금!! 짜면 설탕!!을 항상 외치는 수퐁(한상진). 이런 SL4 다섯 명의 세 달이 지난 지금의 요리 실력은 어떨까?! 다들 한 가지 이상 특기 요리를 가지게 되었고, 누구는 신부수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정말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재료 하나 하나에 정성을 듬뿍 담은 수퐁의 특제 비빔밥!!!



비가오면 생각나는~ 마법같은 히루니의 뽀로롱 파전!!!



조미료 없이 맛을 낸 얼큰하고 시원한 다밋의 진짜 해물탕면!!!



SL4의 만병통치약!! 사그리의 고소한 야채죽!!!



아주 깔끔하고 섬세한 손놀림!! 루와니의 완벽한 채소 다듬기!!! (잔칫날이나 큰 행사 시에 아주 큰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외에도 수퐁의 '샌드위치, 소시지 야채 볶음' 히루니의 '삶은 양배추와 된장찌개' 다밋의 '부대찌개, 계란말이' 사그리의 '떡볶이, 오징어 볶음' 그리고...루와니의 '해물 및 육류 손질 스페셜'까지 많은 것들이 있다.

*입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스리랑카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빨리 오세요..ㅠ) 아니면, 맘에 드는 메뉴와 요리사를 선택하여 편지로 예약하신다면, 2011년 2월 7일 이후 출장 요리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SL4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시는 분은 9,10,11월 월간 보고서 참고)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듯.. 요리는 속성으로 익혔지만, 뒷정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숙하다. 매주 목요일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면 다들 냄새와 전쟁이다(우리가 사는 집에도 '컴포스트 빈'을 들여 놓고 싶다).

또한, 다들 조금씩 요리는 해낸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손맛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항상 다양한 메뉴와 가족들의 입맛에 딱 맞춘 어머니의 위대한 밥상. 그래서 우리는 요리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새삼스럽게 어머니의 고마움을 말하곤 한다.

다시 한번 SL4 다섯 명, 큰 소리로 외쳐본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HIRUNI의 하루 여행..



회사 소개 애인 여행 국내 여행 환율 조회 게시판 Q/A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다시 찾아 온 모라투와 시리즈!!

지친당신! 떠나라!

11월의 어느 날,
사랑스러운 우리의 코디네이터 쌤팻과 함께 모라투와 1일 여행을 떠났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던 곳들이었는데 이렇게 오랜 역사와 비밀이 숨어있을 줄이야!!
100년이 넘는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수도 콜롬보를 비롯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모라투와에도 영국풍의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
기본이 100년. 뿔개는 수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해 온 곳들을 찾아 떠나는 착한여행.
비록 1일 여행이었지만 악천우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운 시간이었다.
그럼 지금부터 모라투와 하루여행을 시작합니다!!

주인장이 추천하는 강추 코스!



Clock Tower

모라투와 YMCA 근처에는 아주 오래 된 시계탑이 하나있다.
이 시계탑은 E.P.A. FERNADO가 그의 가족인 J.A. FERNANDO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시계탑이다. 약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모라투와 사람들의 랜드마크가 되어 주었다. 이곳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개도 많다.
시계탑 앞에는 계단이 있어 꽤 높은 시계탑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도 올라가 주지 않는다.

Prince/Princess of Wales' College

1876년 9월 14일에 세워진 학교. 모라투와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다. Sir Charles Henry De Soysa라는 사업가가 자신의 땅과 돈을 기부해서 이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 4헥타르의 땅과 300,000루피의 큰 돈을 기부하여 이 학교를 지었다고 하니,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다. 처음에는 30명의 선생님들과 800명의 학생들로 시작한 이 학교가 134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학교보다 규모가 커졌다. 7000여 명이 넘는 학생과 수많은 건물들.

많은 건물들 중에서 3개의 건물이 134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학교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약 100년 전에 이 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남녀 성별 구별 없이 이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같은 학교지만 건물이 나뉘어져 있어서 남학생들은 오른쪽 정문을 이용하고, 여학생들은 왼쪽 정문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건물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는 절에서 교육을 받았었다고 하니, 이 학교가 모라투와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 할 수가 있다. 운이 좋으면 일요일에 이 학교에서 하는 크리켓 경기도 관람할 수가 있다.

* 이름이 Collge라고 해서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일반 중,고등학교입니다.





< 강가의 다리에서 뛰어노는 아이 >

Dicarolle Bridge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 Digrolla Garden 바로 옆에 이 다리가 위치해 있다. 이 다리는 약 150년에 지어졌다가 1921년에 다시 재건되었다. 철물 구조로 되어있어 다리가 참 튼튼하긴 하지만, 큰 강 사이에서 난 이 다리에서 보는 강의 전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다리가 무지하게 흔들리는데, 다리를 건너는 때 이 스릴을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다(너무 무서워서 사실 전 5M도 못갔지만.. 그 정도로 스릴이 넘칩니다.).



사진 < 엠마누엘 교회 >
Photo by Hiruni.

엠마누엘 교회

국가가 불교인 스리랑카지만, 이곳에서는 교회를 많이 볼 수 있다. 186이년에 지어진 이 교회는 오는 20이년 12월 27일 150주년을 맞는다. 5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이 교회를 찾고있다. 이 교회 바로 앞에는 우리 SL4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인 'BLA' 가 있는데, 교회를 둘러다다 푹! 이 음식점에서 130루피짜리 오라이드 치킨 라이스를 먹어보길 권한다.



라 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중간 지역)

이곳은 모라투와의 숨어있는 보물!
강과 바다가 맞닿아 있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라굴'이라는 곳을 형성했다.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사람도 별로 없는 아주 조용한 곳. 라굴 주변을 걸으면서 풍경도 보고, 깊은 사색에 잠겨보는 맛이 아주 좋다. 라굴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니, 이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이다.

PUZZLE

이번 달은 퍼즐 맞추기입니다. 프린트 하셔서 퍼즐 조각을 자르신 후 붙여 보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주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저기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선착순 1명이므로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 9월과 10월 치열한 응모 편지들 사이에서 선착순 각 한 분씩을 선정하였습니다. 정답자들은 선물 기대하세요. :) 선물 이벤트는 다음 달에도 계속 됩니다.



〈원본사진〉



당첨자 발표

그 전(현)~*

밤밤밤~*

밤바라라~*

9 월 당첨자



< 용인에서 학교 다니는 '노하현' 군 >



노력상 (무려 9월, 10월 두달 치 정답을 하루 차이로 먼~아일랜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 지금 아일랜드에 체류 중인 '류금선' 양 >

10 월 당첨자



< 용인에 사시는 '정진아' 씨 >

두둥~ SL4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9월과 10월호 퀴즈 정답이 도착했습니다. 먼 곳까지 기쁜 마음으로 적은 귀한 정답 편지를 보내주셔서 SL4는 왕따시 행복합니다.

9월호 정답자는 라온아띠 3기였던 **라이투** 군과 **피유미** 양입니다. 각각 한국과 아일랜드에서 4기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정답을 보내 주셨습니다. 특히, 라히루 군! 동봉한 '일용 양식들' 너무 맛나게 잘 먹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10월호 정답자는 SL4 다밋 군의 둘째 누님 **정진이** 씨입니다. 막내 동생 군대에 있을 때 편지 한 번 못 써줬다며 동생과 더불어 저희 모두를 응원하는 격려의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 640루피 (지난 달 많은 성원 덕분에 20% 할인 된 가격으로 모십니다.)